

‘엘로우시티’ 장성으로 로맨틱 꽃여행 떠나요

7·8일 ‘2018 빈센트의 봄’

‘꽃의 도시’ 장성군이 4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 ‘노란 튤립’으로 환상적으로 변신한다. 장성군은 7~8일 장성역과 장성공원 일대에서 정원 축제인 ‘장성 2018 빈센트의 봄’을 개최한다. 장성군은 4년 전 ‘엘로우시티’ 장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꽃 정원을 만들어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빈센트의 봄’을 시작했다. 이 행사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4월에 가야 할 축제 10선’에 꼽히며 유명세를 탔다.



장성역~장성공원 튤립·팬지 꽃길 탄생
빈센트 정원·쌍둥이 정원 불거리 풍성
거리공연·플리마켓·시화전 등 행사 다채
백양사 들러 고불매 고풍적 자태 감상도

◇‘엘로우시티’ 장성서 만나는 로맨틱 봄꽃 여행=장성의 봄은 튤립과 함께 온다. 웬 튤립이냐고 하겠지만 장성이 ‘엘로우시티’로 불리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것이다. 엘로우시티는 ‘사계절 내내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풀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를 뜻한다. 장성군은 노란 황금빛이 가득하고 따스하게 빛나는 색깔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컬러마케팅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튤립일까. 노란 튤립을 ‘빈센트의 봄’ 축제의 대표 꽃으로 정한 까닭은 노란색을 대표하는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이고 고흐가 태어난 나라가 바로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이기 때문이다.

올해 축제 주제는 ‘엘로우시티! 낭만 봄꽃여행’이다. 장성역부터 장성공원 입구까지 튤립과 팬지 등으로 아름다운 꽃 정원과 꽃길을 조성했다. 장성역 광장에 조성한 봄꽃 정원, 빈센트의 정원, 쌍둥이 정원 등이 주요 볼거리다.

개막일인 7일 매일시장 입구에서 오프닝 무대와 함께 지역 음악인이 준비한 거리공연이 이어진다.

매일시장 입구에는 공방·카페·소품 가게 등 4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청년마켓·먹거리마켓·친환경마켓·플리마켓 등 플리마켓을 마련했다.

장성공원에서 꽃과 함께 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시화전도 열릴 예정이어서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찬란한 담홍빛 고불매 감상. 백양사 인근 신록은 덩=‘빈센트의 봄’을 관람했다면 백양사에 들러 고불매(古佛梅)를 구경하는 것도 추천할만 하다.

우리나라 4대 매화인 고불매는 2007년 천연기념물 제 486호로 지정됐다. 1700년께 백양사 스님들이 현재보다 북쪽으로 100여m 떨어진 옛 백양사 앞뜰에 여러 그루의 매화나무를 심어서 가꿔왔다고 한다. 철종 14년(1863년)에 절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지으면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홍매와 백매를 한 그루씩 같이 옮겨 심었는데 홍매인 고불매만 살아남았다. 고목의 품격이 남다른 고불매는 담홍빛 꽃의 색깔도 뛰어나지만 향 또한 매혹적이다. 희한하게도 한 그루 매화에서 발산하는 향이 백양사 경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짙다.

‘빈센트의 봄’이 열리는 이번 주말까지는 고풍적인 고불매의



오는 7일부터 장성역과 장성공원 일대에서는 정원 축제인 ‘장성 2018 빈센트의 봄’이 열려 지천이 노란 튤립으로 물든다. 지난해 행사가 열렸던 장성역 광장 전경. <장성군 제공>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양사 일대 신록은 장성이 선사하는 또다른 선물이다. 산길을 따라 조금만 걸으며 백양사를 에워싸는 백암산의 신록만 구경해도 압도적인 신록의 아름다움에 숨이 턱 막힐 정도다.

백양사까지 가는 길은 좀 돌아서 가더라도 새로운 도로 대신 옛도로로 걸것을 권한다. 때 맞춰 핀 벚꽃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데다 이곳에 훨씬 더 많은 벚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도로가에 탐스럽게 피어 있는 벚꽃을 제대로 감상하며 봄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장성군에 방문해달라”며 “‘빈센트의 봄’ 축제에 와보면 장성의 봄이 얼마나 싱그럽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읍·면 등에 8000주 배부



지난 28일 장성군민회관 앞에서 진행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서 군 관계자가 묘목을 참가자에게 배부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산수유와 황금느릅나무 8000주를 읍·면과 지역 사회단체에 배부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28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11개 읍·면 관계자와 3개 실과소 관계자, 33개 사회단체 회원, 상무대 장병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장성군을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로 열린 이날 캠페인에서 사회단체 회원, 군장

병 등에게 배부된 나무는 각각 읍·면 공한지나 도로변 등지에 심어진다.

군은 심은 나무가 주민의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 돌보미’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2015년부터 시작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지금까지 총 2만주의 나무가 장성 곳곳에 심어졌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북하면 벚꽃길



백양사 고불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